

2023년 4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귀하
04383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
전자우편: president@president.go.kr

참조.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팩스: +82 44 200 2144

박진 외교부장관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팩스: +82 2 2100 7934 / 7965 / 7967

권영세 통일부장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팩스: +82 2 2100 2319 / 2379

한동훈 법무부장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팩스: +82 2 2110 0351 / 3113

이종섭 국방부장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청사
팩스: +82 2 748 6895

내용: 2023년 4월 26일 정상회담 중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국제 노력 선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께

지난 70년간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과 포로의 대우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을 명백히 위반하여 약 5만명의 국군포로와 10만명의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953년 이후로도 북한은 베트남전과 1970년 해군 방송선 I-2호정 나포사건, 1955년부터 1987년 사이에 60건이 넘는 어선 나포와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을 비롯하여 최소 516명의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0년간 북한은 최소 6명의 한국 시민(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김원호, 고현철 및 신원미상 1인)을 억류 중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2023년 4월 26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에서 북한내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다룸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책임규명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시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2022년 11월 13일 프놈펜 성명에서 귀하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에 주목합니다.¹

뒤이어 2022년 12월 9일 유엔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시민, 일본 및 대한민국 시민의 납치와 강제실종, 북한에 자의에 반하여 붙잡혀 있는 다른 국적자들, 미송환 전쟁포로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¹ [전문]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2022.11.1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211>

억류자, 피랍자, 실종자에 관한 모든 미해결 사안을 해결하고 이들을 즉각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31개국의 공동 성명이 있었습니다.²

우리는 지난 2022년 5월 21일 정상회담 중 이 문제가 논의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습니다.³ 우리는 금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 및 공동성명에 계속 포함시키고 회담 후 특히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한 전원 즉각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모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외교 노력을 공동으로 선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과거 외교 노력이 2018년 5월 9일 북한에 억류 중이던 마지막 미국 시민 3인(김동철,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의 석방 및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이미 식별된 유해를 포함한 미국 전쟁포로·실종자(POW/MIA) 유해의 즉각 송환 공약으로 귀결된 것에 주목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 및 인사(2023년 4월 20일 기준)

김정삼(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북한인권시민연합

한보이스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² Joint Statement Delivered by Ambassador Linda Thomas-Greenfield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ember 9, 2022), <https://usun.usmission.gov/joint-statement-delivered-by-ambassador-linda-thomas-greenfield-on-the-human-rights-situation-in-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

³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22.05.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846>